

한국-Korea 신조어

: 2026 1 16 8:07

타이틀	설명
열폭(열등감 폭팔)	과도하게 흥분하여 비방이나 욕설하는 것이다.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	좋아서 사귀는 감정 없이 단순히 성별이 여자인 친구이다.
엑박	엑스박스 인터넷에서 그림을 표시할 때 그림의 원본이 나오지 않거나 링크가 틀렸을 때 대체되어 표시되는 X자 모양으로 된 상자 엑스박스 게임기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	자신보다 잘난 사람 또는 대중들에게 어느 것 하나 빼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엄마가 하는 말인 "내 친구 아들은 ~하는데"에서 유래했다.
옷팔랑색사고싶다	오빠랑 색쓰하고하고싶다
오랑우탄 틱톡	여자애들을 속되게 부르는 밀알두레 유행 비속어, 밀알두레 남학생이 틱톡을 하는 학생을 놀렸는데 오랑우탄 틱톡이라고 놀렸다. 그말이 웃겨서 그 학교의 유행어가 됐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의미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끌까지 끌어 모아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을 대변한다. 비슷한 단어로 연끌(연금을 끌어 모아 주식에 투자), 빛투(빛을 내 주식에 투자)가 있다.
역선택	선택 이론이라는 경제 용어에서 선거 용어로 바뀌었는데, 엄밀히 말해 원래 의미를 따진 게 아니라 단어의 모양만 보고 활용한 것에 가깝다. 이 때문에 원래 의미와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 <표준어가 되는 과정> 문단에도 있듯이,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4단계 이전에 의미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외래어도 마찬가지이다.
옥동자	원래는 잘생긴 아이를 칭찬하는 데에 쓰는 말이지만, 정종철이 봉송아 학당에서 '옥동자'라는 기믹으로 개그한 게 유행하면서 멸칭으로 전락했다(...).

역대급	표준어가 아니며, 표준어로 인정되어도 구조적 뜻풀이는 '그동안에 준하는'이 된다. 그동안에 준한다는 말은 그냥 평상시라는 뜻이다. 이를 갖고 유행어 화자들 사이에서는 와전되어 쓰이는데, 바로 '그동안에 없던' 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다. 이는 영어의 'all time'과 같은 단어인데, 한국어 특유의 생략법으로 인해 문법적으로 잘못된 단어가 유통되는 것. 정작 '초대급', '2대급', '선대급'처럼은 안 쓰인다.
오놀아놈	오우~ 놀줄아는 놈인가? 의 줄임말
연서복	연애에 서툰 복학생의 줄임말
엄근진	"엄격하다, 근엄하다, 진지하다"의 앞글자만 가져와서 만든 신조어
와방	매우
오덕후	오덕후: 「명사」 일본에서 마니아라는 뜻으로 쓰이는 '오타쿠'에서 유래된 말로 일본 문화에 강한 집착을 가지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쓰인다. 여기서 더 발전되어 어떠한 물건이나 취미에 강한 집착을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문화를 좋아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더 강하게 비하하는 말로는 십덕후(씹덕후)가 있다.
오크	오크: 「명사」 원래는 게임에서 나오는 못생긴 괴물의 이름이었으나, 못생긴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오크녀, 오크남 등의 말로 응용된다. 반대말로는 엘프가 있다. 오크는 환타지물에 등장하는 종족으로 강한 체력과 완력에 무기를 사용하며 지능을 갖추고 집단생활을 하는 전투종족이다. 인간과 엘프에 적대적인 세력이며 삶의 대부분을 전투로 보내며 그런 탓에 천수를 누리진 못하나 번식력이 강해서 개체수가 유지된다.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오케이라는 뜻으로도 통한다.